●'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인사말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감독회장 이 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은 내가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였던 이곳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통스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내시려고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시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904년 하디는 그의 선교보고처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고 창피한 것도 감내하며, 스가랴서 4장 6절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리라(not by power, nor by might, but by the spirit of God)"는 말씀을 평생 목회와 선교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던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1903년 원산대부흥운동에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8년 중국교회 부흥운동의 발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한국 부흥운동의 주역으로서 누구보다 성령으로 인해 가슴 뜨거운 부흥사였고, 이후 30년 동안은 배우며 가르치는 신학 교수로서 냉철한 이성을 가졌던 그 시대의 웨슬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는 2023년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 60년은 '환갑(還甲)', 혹은 '회갑(回甲)'이라 해서 '60갑자'로 이루어지는 인생의 주기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20년은 60년의 곱이므로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120년과 60년이 주는 종교적, 역사적 의미는 '반복(反復)', '재생(再生)', '부활(復活)'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막 16:7)" 하신 것이나, 밧모섬의 요한을 통해 에베소교회에 주신,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계 2:5)"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의 감격과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에 부활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디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는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갈 때 무력감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 회복이 절실하고 교회 회복이 절실한 때에 하나님은 감리교회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리교회는 원산과 평양을 잇는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는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당시 하디 선교사의 깨달음은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한국선교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시작이 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 회개와 영적각성입니다. 새해의 출발을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축복과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료집을 준비해 주신 하디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회개운동을 촉구함으로,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하게 한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각성 유산을 다시 우리 시대에 회복하고, 영적각성의 불씨를 되살려 세상을 바꾸어 가는 감리교회로, 감리교인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첫째 날

1월 1일(주일)

제목: **“오직 주의 영으로”**
본문: 스가랴 4:1-10

목회나 선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을 때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건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까지 들면서 일할 마음도,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포기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의지나 재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부터 짓자”라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 기초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마리아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 땅에 들어와 살던 이방 민족 관료들의 훼방, 이들이 모함하여 쓴 탄원서를 읽은 아닥사스다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노력도 효력 없었습니다. 그런 외부 환경과 조건이 해소되기만 기다리며 20년 허송세월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슥 4:6)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육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한 후 다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고(대하 6:18-21)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신 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던 것입니다(요 4:21-23).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일반 주택 건축과 다릅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도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친 물질과 의지와 노력이 합쳐져 지어진 집입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목회와 선교, 봉사와 친교, 신앙생활 모두가 그러합니다.

금년 2023년은 ‘한국교회 부흥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하디 목사의 영적각성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디 목사는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원산에서 열린 작은 선교사연합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영적 회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하디는 원산에서 시작하여 김화와 서울, 인천, 개성을 거쳐 평양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초기 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디가 처음부터 그런 ‘영적 부흥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남부 세네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감리교 신도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하디는 열 살 때 부모를 모

두 여의고 결혼한 고모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의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결혼한 후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돼라”는 유언의 말씀에 따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토론토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해외 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1890년 의과대학 졸업 후 토론토 의학생 선교회로부터 ‘연 750달러’를 지원을 받고 독립 선교사로 내한하여 부산과 원산에서 사역하였습니다. 하디는 같은 지역에서 ‘연 1천 5백 달러’를 받고 사역하는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과 비교해 ‘상대적 빈곤’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원산에서 6년간 사역하고 나서 학생선교회가 보내주던 ‘연 750달러’ 선교비도 중단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1898년) 한국 선교를 시작한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에서 하디를 의료 개척선교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선교 후원비가 배로 올랐음은 물론 남감리회의 윌슨 감독은 그가 구상했던 종합선교병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윌슨 감독은 1900년 12월 하디를 목사로 안수하고 원산 선교부 책임자로 파송하였습니다. 그의 선교구역은 원산을 중심으로 동해안 따라 북쪽으로 함흥을 거쳐 북청까지, 남쪽으로 고성과 간성, 양양, 삼척을 거쳐 강릉까지, 내륙으로 통천과 회양, 평강, 김화를 거쳐 철원까지 실로 광활하였습니다.

하디의 선교 영역과 조건은 전에 독립 선교사 시절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규 신학교 출신이 아닌 의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남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목회에 임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선교의 결과가 맺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교는 부진했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었으며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하디의 1901~1902년 선교보고를 보면 “한국교회에 실망이 크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나아진 면이 없다”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선교 부진의 원인을 바깥, 정치 사회적 환경과 교인들의 나태함에서 찾았습니다. 교인들의 신앙 각성을 위해 주일성수를 하지 않거나 교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면 가차 없이 징계하고 책벌하였습니다. 그래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결국 목사 안수 3년 만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능력 부족과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선교 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디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직후 연회에 보고한 1903년 선교보고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 “내가 한국에 온 이래 모든 면에서 지난해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악한 존재의 힘이 모든 방면에서 나의 사역을 망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물론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나의 업적마저도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내 사역에 결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나 자신에게 무슨 결점이 있나 살펴보아도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게 된 것은 영적 능력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히 내가 사역에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디는 목회자로서 ‘영적 능력’의 부족, 선교사로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의 영역인 의료와 달리 영적 사역의 영역인 목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디가 1903년 받았던 ‘영적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목회, 성공적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디는 ‘영적 능력’에 덧입히기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디를 한국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영적 침체와 선교 부진, 교인 감소로 위기에 처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눅 24:49)

- 함께 기도합시다.

1.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2.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 하디 목사의 영적각성을 한국감리교회 영적 유산으로 이어가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1월 2일(월요일)

제목: **“말씀과 기도로”**

본문: 디모데전서 4:1-5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밝히 예언하시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귀중한 권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지극히 악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물질문명의 지배와 더불어 각양각색 우상숭배에 노예화되어 가면서 인간성은 한없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궤계와 얽혀져 행해지고 있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특히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아 미디어에 굴레가 씌워져서 그 통로들을 통해 인간을 속박하는 죄와 정욕의 무서운 세력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들의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시작된 것이지만, 잘못된 교훈과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을 흔들어 견고한 기초가 파괴되고 의심과 미혹에 빠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양의 겉옷을 입고 기만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굳건히 서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신자들에게 거짓된 교리들의 유혹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거부하고 대적하지만, 교묘하고 사악한 방법을 써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고 설복하게 될 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의 흥왕과 극성은 너무 확연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육에서도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미래의 목회자들인 신학도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성경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바르고 생명 있는 성경적인 신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함을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매일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를 현실화하는 참된 영성의 본질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만, 세상의 유혹들과 시련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다시 옛사람의 타락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어린 유아적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성화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엄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좁은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정욕에 속박된 노예와 같은 옛사람의 삶과 온전히 분리되는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노력을 오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성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을 위한 훈련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단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금식, 성찬, 소그룹 영성 훈련, 섬김과 예배 등의 은혜의 수단들이 초기 감리교회 이후 주된 영성 수련의 방식으로서 규칙적인 규범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성화의 훈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계승, 실천되고 있는지는 깊은 숙고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와 같은 웨슬리적인 방식과 성숙한 영

성 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뿌리를 내리거나 가르쳐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디의 영적각성을 기억하면서 그 영성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은혜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을 촉발했던 것은 원산에서 있었던 여선교사 두 분의 합심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의 사경회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참석한 성도들은 두 주일 동안이나 낮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이면 기도회로 모여 각각 기도와 간증을 하는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적 헌신을 통해 성령님의 감화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회개하는 깊은 슬픔의 기도가 있은 후에 은혜 받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역사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양식을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를 통하여 복음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되자 그동안 이름만 기독교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부흥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한국교회의 캐릭터(성격, 기질)를 복음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여선교사님들이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영적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선교사 캐럴과 노울즈는 원산 루씨학교 봉헌을 마친 후 사경회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하디 선교사에게 인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순수하고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디는 부흥사경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그는 큰 축복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디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가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연합사경회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 것이 그 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일어난 원산 부흥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지쳐있던 선교사들에게 여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선교사에게 힘과 기쁨과 의욕을 넘쳐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읽게 됩니다. 즉 여선교사님들이 매일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회를 하는 중에, 성경 공부와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한국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에 쓴 '대 부흥 운동에서의 하나님의 터치(만져주심)'라는 글에서 그 배경과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운동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자신의 욕구나 잘되기를 바라는 소원 이전에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서 오순절 체험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초대교회적인 오순절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감리교회도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로 돌이켜 성령의 오순절적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2. 한국교회의 오순절인 1903 원산 성령강림이 우리 개인과 교회, 사회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셋째 날

1월 3일(화요일)

제목: “진정한 감리교인”

본문: 로마서 10:1-10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 성직자였던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북미 조지아 선교’ 실패 후 사역과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내적 불안에 사로잡혀 지내던 중 1738년 5월 24일 저녁 우연히 런던 시내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성령과 회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에 웨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작은 신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존 웨슬리의 저널1, 신앙과 지성사, p.155)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사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에 실패한 원인을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10:2)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의를 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10:3)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좇아가야 할 바른 의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그 바른 의는 다름 아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10:4)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텔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텔로스’는 ‘끝’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뜻에서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지이자 완성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로마서 3:20-23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9-10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903년 8월 원산에서 남감리회 선교사들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모여,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원산 선교부의 지도자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

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인도한 이 사경회에서 초기 한국교회의 기질과 성격, 형식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는 사경회에서 선포할 요한복음 14-16장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습니다. 하디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하디 자신을 말함)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우선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회중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수년 동안 성령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였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음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가 기도회 시간에 방금 경험한 것을 말하자 그 즉시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하였다."

하디는 모태 감리교 신앙인으로, 선교사로, 목사로서 그동안 동료 선교사와 토착교인들 앞에서 믿음과 성령에 대하여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였지만, 정작 자기 안에 그런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으로'만 교인이었지, '내적으로' 교인은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디는 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깊어지고 있던 어느 순간, '죄를 용서 받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내적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사경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선교사 사경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처음 맞이한 주일(1903년 8월 30일) 아침 예배 때, 원산 남촌동 예배당에 모인 토착교인들 앞에서 '부끄럽고 곤혹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오만과 굳은 마음과 불신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교사를 '완벽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던 토착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점과 믿음 없음은 물론 선교비를 유용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국교인들은 처음으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는 단순한 감정적인 돌이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중심으로 잘못 가던 길에서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입니다. 존재 전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감리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감리교인 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사도, 존 웨슬리, 로버트 하디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감리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소서.
2.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과 말과 삶 전체가 예수로 바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넷째 날

1월 4일(수요일)

제목: **“회개의 마중물”**
본문: 요한복음 4:9-14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던 펌프를 이제는 민속촌이나 가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체험학습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펌프를 사용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펌프질을 해서 지하의 물을 끌어 올리려면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 넣고 펌프질을 하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마중물은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곁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4:13,14)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15) 이 여인은 지금까지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사람들이 물을 긷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이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다섯 명이나 있었던 남편도, 지금 함께 사는 남자까지도 목마른 그녀의 목을 축여주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고립된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은 한낮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여인이 생각했던 생수와는 차원이 다른 생수였습니다. 갈증 나는 목을 축여주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샘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17:3)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동문서답 같은 대화의 정점에서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4:25)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4:26) 우회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드러내 놓고 싶지 않았던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예수님도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여인은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여인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갈증을 채워주던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여인은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한낮에 우물을 찾았던 여인이 이제 그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4:29)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듭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께로 나아온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마중물이 되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 마을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마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앎’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경험하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목말랐던 이 여인이나 인도를 받았

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4:42)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2천 년 전 성경 속 이야기만 아니라, 1903년 8월 원산의 로버트 하디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사경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던 고참 선교사 하디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자신의 삶을 회개하자 후배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토착교인들에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디의 회개는 토착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어린 회개가 청년 교인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최종손'이 하디처럼 회개하고 자복한 후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강태수'가 회개하고 자복하였고, 또한 '정춘수'의 자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춘수'는 후에 남감리회 전도사로 개성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1911년 협성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남감리회 최초 한국인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청년 교인'들의 회개는 점차 일반교인들의 회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춘수'가 공개 자복한 주일 저녁에 예상보다 일찍 프란손 선교사가 원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프란손 선교사를 통한 초교파(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집회가 열립니다. 프란손의 원산 집회는 '겉으로' 보기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디의 사경회 때처럼 토착교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원산에 살면서도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침례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한 주간 동안 연합으로 집회를 가져 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초교파 집회를 통해 서로 신앙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낸 감리교인들의 영향은 다른 토착교인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프란손의 집회가 마친 다음 날인 1903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하디는 예정에 없던 감리교인들 특별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마침내 토착교인들의 회개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하디의 증언입니다.

"그[프란손]가 떠난 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교인들의 관심과 열기는 더욱 증폭되었다. 집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은 누가 먼저 죄를 자복하면 그 뒤를 이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였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자복하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두세 번은 설교할 수조차 없었다. 성경의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을 택하든 교인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집회가 끝날 즈음엔 우리 교회 교인은 거의 모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여러 명 회심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모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생하고도 인격적인 종교체험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그들이 보여준 삶을 볼 때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 이덕주, p.345)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은 내 자신의 진솔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디의 회개를 시작으로 청년 교인들과 일반 교인들의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2:37-38)

- 함께 기도합시다.
  1. 내가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우리의 완악한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2. 진솔한 나의 회개가 마중물이 되어 온 가족, 한국교회, 사회 전체의 회개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1월 5일(목요일)

제목: **“선한 양심의 회복”**
본문: 히브리서 10:19-22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우리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에 실망과 좌절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19-22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신앙인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히10:19)라는 말은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강권하는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담력은 원래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나타내는 정치적 단어였습니다.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뜻이 발전하여 행동을 밀고 나가는 용기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산길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려놓은 성막입니다. 그 휘장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은 ‘봉헌하였다. 시작하였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봉헌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감히 열 수 없었던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직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열렸습니다.(마27:51)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요14: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유용한 새로운 산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활방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나 중심적인 생활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며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고 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이나 내가 세운 어떤 공적도 아닌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고전1:31)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히10:21) 하나님의 집은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 곧 교회입니다.(고전6:20)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롬8:34)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히10:1)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히4:15)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디의 원산 부흥 운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산 부흥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과거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 윤성근 전도사는 그런 회개의 본이 되었다. 그는 사경회 때마다 자기 죄과를 자백하고 횡령하거나 훔친 것이 생각나면 곧바로 배상하였다. 그런 식으로 윤성근은 20년 전에 횡령했던 '정부 돈'도 갚았다. 윤성근은 20년 전,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월급 이외의 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회사에 돌려주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횡재로' 생각하고 써버렸다. 그런데 사경회 때 '성령 세례'를 받은 후 그것이 '횡령'에 해당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돈을 마련하여 하디에게 주었다. 자신은 병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디에게 대신 정부에 돌려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하디는 그 돈을 받아 마침 서울에 와있던 윤치호에게 전달하였고 윤치호는 그 윤성근의 돈을 탁지부(당시 조폐국 기능)에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 하디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윤성근의 양심전 영수증을 하디가 간직하게 되었다. 하디가 소유한 '양심전 영수증'은 그 주인공인 윤성근뿐 아니라 부흥 운동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난 토착 교인들의 양심회복과 선행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으므로 몸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이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되었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제2의 윤성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받았다면서 정작 마비된 양심으로 반복한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2.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하고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여섯째 날

1월 6일(금요일)

제목 :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
본문 : 누가복음 13:18-21

누가복음 13장 18~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만큼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겨자씨는 1~1.5mm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성장하면 4~5m나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 성장의 폭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이 겨자 꽃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은 온통 겨자밭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과 전파력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십니다.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로서 빵이나 술을 빚을 때 혹은 된장 같은 장을 담글 때 발효제로 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가루이거나 딱딱한 고체지만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어서 발효를 돕습니다. 특히 빵을 만들 때 넣는 누룩의 양은 극히 적지만 반죽과 섞이면 서서히 빵 반죽 전체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발효를 시킨 빵은 그 풍미와 맛이 깊어지고 부푼 빵 반죽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좋은 식감을 냅니다. 본문의 밀가루 서말은 20킬로그램이 넘는 양인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되면 반죽은 본래의 양보다 몇 배는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지만 후에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원래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확장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외적인 확장과 양적 성장(외적인 부흥)을 뜻한다면,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은 내적인 확장과 질적 성장(내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부흥을 동반합니다. 사도행전 2:47~48은 처음 예루살렘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변화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믿는 자들의 성령 세례를 통한 영적인 변화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900년 원산지역의 선교책임자로 부임한 하디 목사는 성과가 없는 선교활동과 변화가 없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 연합사경회를 인도하면서 하디 목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듭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했던 사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디 목사의 영적각성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한 알 겨자씨가 되고 적은 누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하디 목사는 자신의 죄와 과오를 성도들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며 성도들은 그런 하디 목사의 진솔한 회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도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디의 회개와 부흥운동을 목격한 노울즈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디 목사가 교인들을 불러 모은 후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자 사람들은 그의 고백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마침내 그들도 성령의 능

력을 입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 부흥의 불길은 전국 교회로 확산되어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 후로 하디 목사는 1904년 1월 원산사경회, 2월 김화(새술막)사경회, 3월 개성사경회, 4월 서울부흥회 나아가 1905년 11월 인천부흥회를 인도하며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촉발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나라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디 목사에게 개성사경회 인도를 요청했던 크램 선교사의 보고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904년 3월 1일 어간에 원산주재 선교사 하디 박사가 개성에서 집회를 인도했으며 집회에 참석한 한국인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자백하고 집회를 마친 후 권서들이 지방으로 흩어져서 쪽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부터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한다는 보고를 들었다”

하디 목사가 인도한 사경회와 부흥회 설교의 특징은 회개와 거듭남, 믿음과 기도, 성령의 열매와 충만 등 지극히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 교리였고 그 내용을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기초하여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디 목사의 설교에 교인들은 회개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동교회에서 학생부흥회를 인도한 하디 목사의 설교를 들은 학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였으며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학생들도 많았다는 배재학당 교사 하운셀의 증언으로 보아 기존의 교인들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새롭게 믿게 되는 신자들이 나오는 전도사역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이고 질적인 변화에서 외적이고 양적인 성장까지 이뤄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능력 부족과 한계점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가졌던 하디 목사가 성령의 임재로 거듭난 후, 그가 인도한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부흥이 시작되고 점차 그 지경이 넓어져서 한국교회 부흥운동으로 확장된 것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합2:14)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겨자씨와 누룩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겨자씨는 마를 대로 말라 생명력을 잃어 땅에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누룩은 묵을 대로 묵고 상해서 반죽에 넣어도 부풀리기는 커녕 썩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핑계를 대거나,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한 하디 목사의 영적각성이 오늘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실패를 내 탓으로 인정하는 한 사람의 정직한 회개가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적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침체한 한국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작은 겨자씨가 되고 적은 누룩이 됩시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며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소서.
  2. 나부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가정, 교회, 나라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소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1월 7일(토요일)

제목: **“하나 되게 하소서”**
본문: 에베소서 4:1-6

2023년 우리 감리교회는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성령체험을 오늘 우리가 왜 기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디의 영적각성은 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 한국감리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오순절의 성령강림 같은 일이 1903년 한국 원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감히 견주어본다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한국 원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903년 하디의 영적각성으로 시작된 원산의 부흥 운동은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하디의 회개로부터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디의 영적 체험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사경회를 통한 부흥의 열기는 1904년으로 이어져, 원산 교인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사경회가 한 주간 더 연장하여 2월 1일부터 8일까지 남촌동감리교회에서 사경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연장된 사경회는 감리교회뿐 아니라 창천동 장로교회, 관교동 침례교회 교인들이 참석하여 ‘초교파 연합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장로교 선교사 럽은 1904~1905년 함흥과 성진 지역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1907년 평양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장로교 부흥 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파를 구별하지 않으며, 복음의 사역은 교단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뿐 아니라 모든 개신교파 교회들이 통합하여 단일 기독교회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에서 선교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하디의 ‘마지막’ 소원이자 과제였습니다. 하나 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의 남북감리회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부터 비록 소속된 본국(미국)교회의 총회와 연회는 나뉘었지만, 선교지 한국에서 협력과 연합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타협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파나 교단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며,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교단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하디는 한국에 들어온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통합을 주도하며 마침내 이루어내었습니다. 1930년 12월 2일 오전 10시 당시 협성신학교(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역사적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2월 8일 총리사 선거를 실시하여 4차 투표 끝에 양주삼 목사가 초대 총리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 된 감리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통합에 머물지 않고 하디는 초교파 연합운동, 교파 합동운동을 꿈꾸었으며, 그 기원을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에서 찾았습니다. 하디는 “기독교 선교를 받아들이는 민족들은 교파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 형태 방법으로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주님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며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를 선교와 목회의 마지막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교회 일치와 연합의 명령과 근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성도

들을 훈련시키는 복음공동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일성과 순결성을 실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2,3) 성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필수입니다. '겸손'은 당시 사회에서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덕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이 신앙인의 미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강한 자가 자기를 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혹은 잘못에 대하여 응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납'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자기 절제와 희생으로 이루는 하나 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장벽을 무너트리셨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도는 하나 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4:4-6)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교파 혹은 교단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뭇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공동체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6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행4:12)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행5:42) 사도의 전승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 되라'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디는 이 분명한 하나님 명령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감리교인은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하디 선교사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감리교인은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땅 모든 복음적인 교회와 하나 되어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 함께 기도합시다.
  1. 우리 속에 분열을 일으키는 교만과 강퍅함과 조급함과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